

# 놀이·체험하며 아시아로 문화여행

## ●ACC재단,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실 새단장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콘텐츠 ACC어린이문화원이 새단장을 마치고 어린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자연·인문 각 나라 정보 수집하고  
티켓부터 여행준비물까지 골라  
아시아 5개 권역 세계유산 탐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최근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실 일부 영역을 새롭게 개편하고 관람객들에게 공개했다. 어린이체험관은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감각과 표현' 등 세 가지 주제로 한 상설전시실을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신규전시는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요'를 주제로 어린이체험관의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아시아의 기본 정보를 어린이 스스로 찾아보며, 자신만의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어린이체험관에 입장하면 어린이 관람객들은 아시아가 세계 속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아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시아의 세계유산과 랜드마크는 무엇이 있는지 등 아시아의 자연

환경과 인문환경을 주제로 여러가지 정보를 찾으며 여행을 준비하게 된다. 먼저 '나만의 여행 준비물' 섹션에서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티켓을 이용해 여행 준비물을 챙긴다. 날씨를 참고해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나만의 가방을 꾸려 원하는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떠나본다.

미디어 보드게임을 하며 아시아 5개 권역의 세계유산을 탐험해보고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보는 등 아시아에 대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나도 세계유산 탐험' 체험도 만나볼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 국기를 떼고 붙여볼 수 있는 '여기저기 쪽쪽, 지도 만들기' 섹션도 마련돼 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세계유산과 랜드마크를 활용한 핸드즈온 체험물과 게임형 콘텐츠 등을 전



새단장을 마친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실 모습. <ACC재단 제공>

시장 곳곳에 마련해 학습효과와 재미를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숙 ACC재단 사장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즐겁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선보일 것"이라며 "ACC재단은 향후 전시 콘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체험관 입장료는 만 4세~14세 미만 어린이 5천원, 만 14세 이상 3천원이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최명진기자

장희구 박사 (548)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還目魚(환목어)(4) -택당 이식  
난리 끝나 임금님 서울로 오신 뒤에  
수라상에 진수성찬 서로들 뽐내는데  
고기를 맛보는 은총 한 번도 못 받았네.  
金輿旣旋反 玉饌競珍膾(김여기선반 옥찬경진지)  
嗟汝廁其間 詎敢當一匙(차여추기간 거감당일시)

## 불쌍한 이 도루묵도 수라상 사이에 끼었는데



허균의 '도문대작(屠門大嚼)'에 도루묵이 나온다. "은어는 동해에서 난다. 처음 이름은 목어였다. 고려 때 좋아하는 임금이 있어 은어로 고쳤다 많이 먹어 싫증이 나자 다시 목어라고 고쳤다 해 환목어라 한다" 선조 때 인문인 허균이 적은 글이니 그동안 개명의 주인공을 선조

로 안 것은 잘못이다. 세상 말의 외젠이 늘 이렇다. 난리 끝나 임금님이 서울로 돌아온 뒤, 수라상에 진수성찬 서로들 뽐낸 적이 있었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불쌍한 이 도루묵도 그 수라상 사이에 끼었는데(還目魚)로 제목을 붙여본 울(律)의 4수인 오언시풍이다.

작가는 택당(澤堂) 이식(李植:1584-1647)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642년 척화를 주장한다 해 심양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인물이다. 1643년 대사헌, 형조·이조·예조 판서 등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46년 별시관으로 출제했다가 시제에 역의가 있다 해 관직이 삭탈됐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난리 끝나 임금님이 서울로 돌아온 뒤 / 수라상에 진수성찬 서로들 뽐낼 적에 // 불쌍한 이 고기도 수라상 사이에 끼었는데 / 임금님이 맛보는 은총을 한 번도 못 받았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임금님 돌아가자 다시 목어(目魚) 되었네'로 번역된다. 동해로 동해에서 손수 은어라는 이름을 주고 먹었던 고기였음을 알고 아랫사람들이 그 반찬을 놓았다. 그렇지만 임금의 태도는 돌변했다.

시인은 나라가 평정되고 임금님이 돌아갔음을 시상으로 떠올렸다. 난리가 끝나 임금님이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수라상에 진수성찬 서로들 뽐낼 적에 도루묵도 올랐다. 이 시상은 임금님의 환대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를 그대로 보이려는 주머니임을 안다.

화자는 앞 구에 이어서 맛있는 고기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불쌍한 도루묵 고기도 수라상 사이에 끼었는데, 임금이 맛을 보시는 은총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임금님의 입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였음을 알게 한다. 이어지는 5수에는 '이름이 삭탈되어 도로 목어로 떨어져서 / 순식간에 버린 물건 푸대접을 당했다네 // 잘나고 못난 것이 자기와는 상관 없고 / 귀하고 천한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지네'라고 해 이름이 오히려 삭탈됐음을 시상으로 묶어냈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金輿: 금상의 수레. 임금의 행차. 旣: 이미. 旋反: 돌아가다. 玉饌: 수라상. 競: 다투다. 珍膾: 진미. 좋은 기름기. // 嗟: 아차. 汝: 너. 이 고기. 廁: 여기선(廁)과 같으나 '부역'으로 불. 其間: 그 사이. 詎: 어찌. 진실로. 敢當: 감당하다. 一匙: 한 번 먹다. 임금님 숟가락을 썼다.

## 진도 자연 지키는 '동물 반장'은 누구?

### 소리하나 초청 아동공연, 20일 남도국악원

진도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동물 친구들의 반장선거가 펼쳐진다. 예술창작집단 소리하나 초청공연 아동극 '내가 반장이 된다면'이 오는 20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야당에서 열린다. <사진> 진도에 살고 있는 고양이 관광객들로 더러워진 진도의 모습을 보고 혼자 청소를 하지만 쉽지 않다. 고양이는 동물 친구들에게 진도를 깨끗하게 지킬 반장을 뽑자고 제안한다. 사슴, 곰, 토끼,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 반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저마다의 매력을 뽐낸다. 어떤 동물이 반장이 될 것인지 온 가족이 흥



미진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 창단한 예술창작집단 소리 하나는 전통문화 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단체다. /최명진기자

## 인공지능과 예술의 공존을 상상하다

### 20일 광주과학관서 공연·강연

국립광주과학관이 인공지능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5회 인공지능 융합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과학관 본관 1층 상상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공연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융합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5회째를 맞아 무료행사로 전환하고, 공연의 품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과 사람이 작곡한 곡을 비교해서 들어본다. 이와 함께 광주첼로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도 선보일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2부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과거 산업혁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챗GPT를 시작으로 급변할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강연자로서는 이제현 박사는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강연을 통해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주유라 과학문화실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과 예술을 융합한 콘서트를 통해 우리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 자리 잡고 있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상상해보는 창의적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